

朝鮮後期 耆老宴 繪畫에 나타난 食文化에 관한 研究⁺

고 경 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 전공
(2005년 1월 8일 접수)

A Study o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od Culture in Giroyeon Paintings⁺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January 8, 2005)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ood culture appearing in *Giroyeon* paintings in the late Chosun Dynasty (early 17th~19th century), a period under political and economical difficulties in overcoming frustrations and looking for self-restoration methods after *Imjinweran*(1592~1598) and *Byungjahoran*(1636~1637). Paintings related to *Giroyeon* include Lee Gi-ryong's (1600~?) <*Namjiginohoedo*> painted in 1629 under the reign of King Injo (1623~1649), <*Gisasayeondo*> painted jointly by Kim Jin-yeo *et al.* in 1720, the first year of King Gyeongjong (1720~1724) and Kim Hong-do's <*Giroseryeongyedo*> painted in 1804 under the reign of King Sunjo (1800~1834)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se paintings over three centuries of the late Chosun show changes in the character of *Giroyeon*, food culture and tableware culture, etc. According to these paintings, the character of *Giroyeon* was expanded from a feast held for high civil officials to a banquet comprehending general civil servants. These paintings show *Hyangeumjueui*, which means the decorum of respecting and serving the aged men of virtue with alcohol beverage, table manner, seated culture represented by cushions and mats and individual-table culture.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demand for *sunbaikja* and *chungwhabaikja* and the diversification of vessels and dishes are demonstrated in *Giroyeon* paintings after *Imjinweran* in 1592. In this way, *Giroyeon* paintings show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te Chosun Dynasty, such as the collapse of *Yangban-centered* political system, the disintegration of the medieval system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ilhak* and the diversification of food culture.

Key Words : Chosun Dynasty, food culture, *Giroyeon* paintings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선후기 동갑노인의 친목을 위한 기로회 회화에 나타난 식문화의 연관성을 통하여 조선시대 기로회의 변천에 따른 식문화의

변화 및 공동체 특수성의 일면을 규명하는데 있다. 문화는 어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식생활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양식을 식문화라고 한다¹⁾. 식문화는 한 시대의 민족문화의 특성,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분야로 한

교신저자: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kkok-2dong, Wonmi-gu, Puchon 420-743, Korea Tel : 82-2-2164-4313 Fax : 82-2-2164-4111 E-mail : verokoh@catholic.ac.k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2004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공동의 실천과 목적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도덕적으로 결속된 구성적 공동체의 성격이 커서 주로 지리적, 혈연적 바탕을 둔 집단 의식을 볼 수 있다²⁾.

기로회의 효시는 고려시대 최당(崔諫, 1135~1211년)이 동생인 최선(崔詵) 및 관직에서 물러난 7명의 노사대부(老士大夫)들과 함께 중국 당대(唐代) 백락천(白樂天)의 낙중구노회(洛中九老會)와 북송대(北宋代) 문언박(文彦博)의 진솔회(眞率會)를 본받아 조직했던 해동기로회(海東耆老會)로부터 유래된다. 고려시대의 기로회의 회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재상급(宰相級) 이상의 고위직 경력과 70세 이상 나이의 소유자로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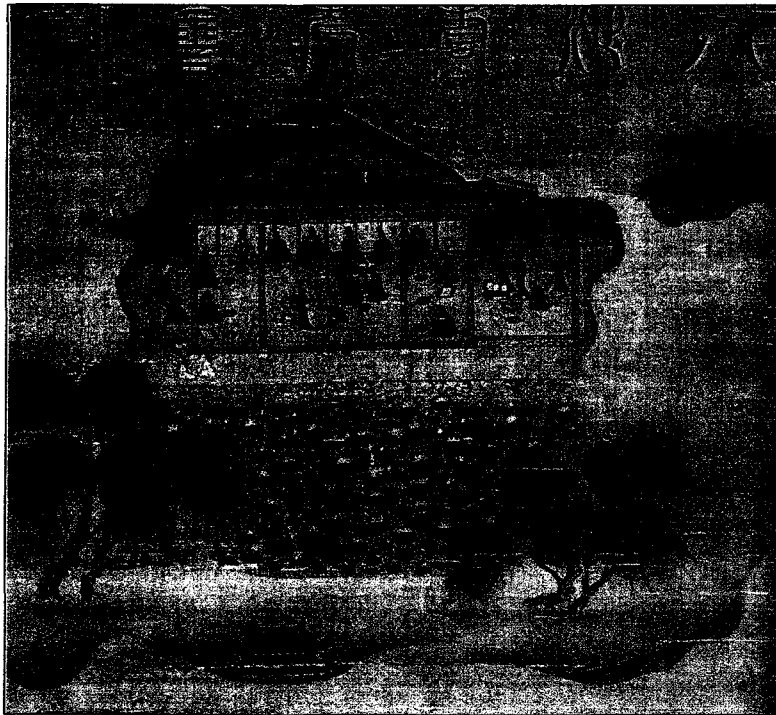
이런 기로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임금도 참여하는 기로소(耆老所) 또는 기사(耆社)라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기로연은 기로소(耆老所,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기구)에 등록된 나이 많은 문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 주는 잔치를 말한다. 매년 상사(上巳: 3월 3일)와 중앙(重陽: 9월 9일)에 보제루(普濟樓)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3) 4)}.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耆),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로연에는 정 2품의 실직(實職)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 출신 관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기사(耆社) 이외에 종친으로 70세에 2품 이상인 지, 정 1품관, 경영당 상관들을 위하여 훈련원이나 반송정에서 관직이나 연령에 관한 조건이 대폭 완화된 기영회(耆英會)도 조직하게 되었다⁴⁾. 조선시대의 기로연은 1394년(태조 3년) 한양 천도 후 태조 자신이 60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나이든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 것이 처음이었다.

본 논문은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면은 200년간 유지해 온 양반정치의 붕괴, 경제적인면으로는 17세기 실학파의 대두로 중세적 체제의 해체로 자기회복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대, 또 식생활면에서는 고추 및 남방식품과 외국요리법 등 식생활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17세기부터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 19세기 초 까지 조선후기 기로연 회화에 나타난 식문화를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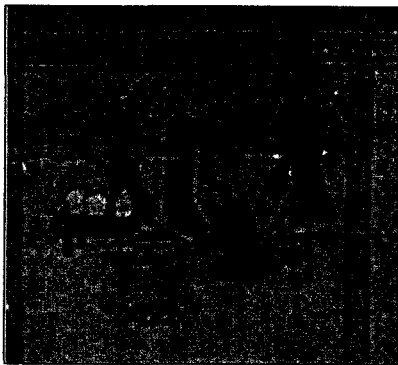
II. 본론

1. 남지계회도(南池契會圖, 16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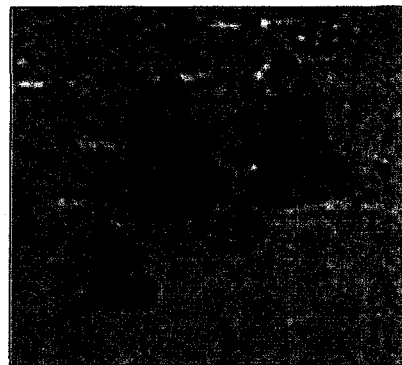
이기룡(李起龍, 1600~?)은 인조(仁祖)때 화원으로 1643년에 통신사(通信使)의 일원으로 김명국(金明國)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으며 그는 그곳에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다⁴⁾. <그림 1>의 계회도(契會圖)는 17세기 조선중기 계회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계회 장면이 실내에서 펼쳐지고 있고 배경보다 장면 자체에 역점을 두었고 상단에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라는 전서체(篆書體)의 제목(題目)을 쓰고, 중단에 계회 장면을 묘사하며, <그림 1>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하단에 좌목을 적은 점은 조선초기 계회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림과 좌목 사이에는 승정기사계하지길(崇禎己巳季夏之吉)의 년기(年記)가 적힌 장유(張維)의 찬문(贊文)이 있어 1629년에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에 <이기룡사(李起龍寫)>라는 관서(款署)가 적혀있어 화가(畫家)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 이점도 전에 없던 일로 주목된다. 좌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이인기(李麟奇), 윤동로(尹東老), 이유간(李惟侃), 이호민(李好閔), 이근(李勤), 홍사효(洪思黻), 강인(姜綏), 이귀(李貴), 서성(徐滄), 강담(姜瓘), 유순익(柳舜翼), 심륜(沈倫) 등 12명이다. 이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에 참여한 인물들은 고려 이래의 전통적인 기로회(耆老會)나 기영회(耆英會)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관직이 별로 높지 않다. 이 점은 조선중기에는 임금도 참여하는 기사(耆社)이외에 노사대부(老士大夫)들 사이에 자격조건이 덜 엄격한 기로회(耆老會)들이 조직되고 했음을 말해준다⁴⁾. <그림 1>의 계회도는 근경에 성과 성문을, 중경에 연못을, 그리고 후경에 실내의 계회장면을 묘사하고 이것들 모두를 안개가 동그랗게 감싼듯이 표현하였다. 좌우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 버드나무를 뒷편으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연꽃들이 피어있는 연못이 펼쳐져 있어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한 분위기는 12명의 참석자들이 고운 옷 색깔에 의해 더욱 고조되는 느낌이다. 산수배경(山水背景)은 근경의 버드나무들과 후경 오른쪽 구석의 나무만 남기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근경의 성(城)의 모습을 보면 찬문(贊文)에 적힌대로 모임이



〈그림 1〉 이기룡(李起龍) -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부분/1629년/건본채색/116.4×72.4cm/서울대박물관



〈그림 2〉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부분 확대



〈그림 3〉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부분 확대

1629년 6월 5일 승례문(崇禮門, 南大門) 앞의 홍침추계(洪僉樞第, 즉 기로연 참석자의 한 명인 첨증추부사 홍사효의 집)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다⁴⁾. 식문화적면에서 오른쪽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동들이 분주하게 나르고 있고, 유일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상(盤床)과 방석(方席)의 좌식문화(座食文化)의 특성을 볼 수 있다. 계층에 관계없이 독상(獨床)으로 대접하는 한국 반상차림의 기본 풍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와 존장주의(尊長主義)에서 가능한 식문화라고 볼 수 있다⁵⁾.

〈그림 2〉에서 보면 주칠(朱漆)한 사우반(四隅盤)과 생칠(生漆)한 원반(圓盤)의 소반이 보인다. 칠감

에 관해 살펴보면, 고급품에는 주칠(朱漆)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거의 궁중용에만 주칠(朱漆) 반상을 사용하였다⁶⁾.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일반용의 주칠(朱漆)은 금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보통 소반은 생칠(生漆)을 했다고 하였으며 고급품은 삼베나 닥종이를 대고 그 위에 특별히 정제한 옷에 주(朱)를 섞어서 칠한다고 하였다⁶⁾. 〈그림 3〉에서 이들 노사대부는 주칠 반상에서 술로써 자오(自娛)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듯 하다. 〈예기〉의 제 45편에는 향음주의(鄉飲酒義)는 어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기르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는 예(禮)를 기록하였다⁸⁾. 효종(1649-1659) 연간에 유명한 유학자 이준

재(李存齋)의 어머니 장부인(長夫人)의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으로 17세기 식문화를 대략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⁹⁾.

이 회화의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초(1629년)로 임진왜란(1592-1598년)이 끝나고 병자호란(1636~1637년) 이전으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회복의 방법을 모색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다. 이 시대의 도자기 문화를 보면,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분원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시대로 경기도 광주 금사리와 분원리에 분원이 중차 되면서 달항아리, 술병, 각종제기 등에서 독특한 기형과 깊이 있는 순백색을 자랑하며 조선 고유의 백자문화를 발전시킨 시대로 백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¹⁰⁾ <그림 2>에서 자기의 형태는 17세기 대표적인 순백자 형태의 주병(酒瓶)과 완(碗)을 볼 수 있다.

2.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1720년)

궁중의 권위적인 행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민이 등장하는 기록화로는 숙종(肅宗 46년, 1720년)에 제작된 『기사계첩(耆社契帖, 보물 638, 639호)』으로 1719년(肅宗 45년) 4월 17~18일에 70세가 넘는 이유(李濡), 김창집(金昌集) 등 최규서(崔奎瑞)가 제의된 10명의 원로 중신들에게 왕이 기로연(耆老宴)을 베푸는 기념으로 그린 것이다. 화첩 제작에는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倬) 등 화원들이 참여하였고 비단에 화사한 채색으로 그린 각종 행사장면과 10명의 반신상 초상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는 광화문 밖 기로소에서 가진 연회장면에는 민간인 구경꾼들이 등장한다. 차일이 쳐진 건물 안에 좌우로 나뉘어 앉은 원로 중신들이 각기 독상을 앞에 놓고 두 동자의 춤을 구경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처용무(處容舞)가 진행되고 있다. 마당 아래 오른쪽으로 백발이 성성한 두 촌로가 처용무의 흥에 맞추어 흥에 겨워 덩달아 춤을 추는 광경과 아래 좌우에 가족들로 보이는 선비와 여인, 아이들이 배치되어 있다. 잘 정돈되고 딱딱하게 구성된 화면에서 이들 구경꾼과 촌로가 권위의 균형을 깨고 있다. 특히 삼베옷 차림의 촌로 모습이 그러하다¹¹⁾. 비록 이 화첩에 나오는 그림들이 기록화로서 도식화된 점이 없진 않으나 당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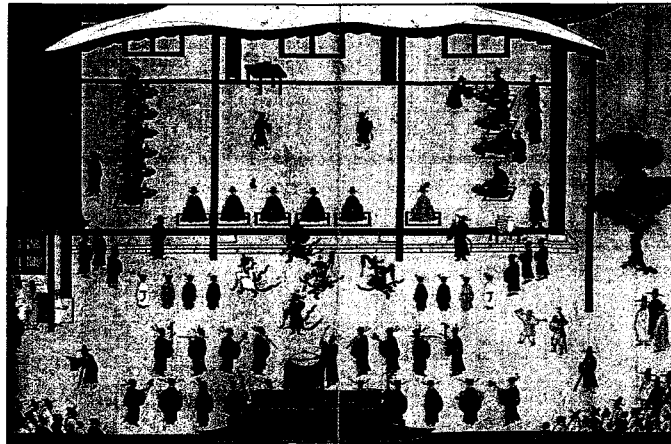
역사자료로서 18세기 초(1720년) 식문화, 의상, 전통 음악과 무용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⁴⁾.

반상문화차원에서 <그림 4>에서 주칠한 책상반(冊床盤), 흑칠 원반(圓盤)의 반상문화를 볼 수 있다. 칠감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급품에는 주칠(朱漆)과 흑칠(黑漆)을 하였다고 한다⁶⁾. <그림 5>에서 흑칠 반상에서 노인을 기르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는 예(禮)를 볼 수 있다.(예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식문화 관련문헌으로 서유구(徐有榘)의 형수이며 서유본(徐有本)의 아내인 빙허각 이씨(1759~1824)의 저서인 『규합총서(閨閣叢書)』는 3부 11책으로 된 『빙허각전서』의 제1부였는데 소실되고 규합총서만 남았는데 이 책에서는 사대부의 식시오관(食時五觀), 음식금기(飲食禁忌), 음주금기(飲酒禁忌), 상극식품(相尅食品) 등을 다양하게 다루었다^{12, 13)}. 박지원의 제자였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선비, 부녀자, 어린이의 식사에절에 관한 예의가 수록되어 있다^{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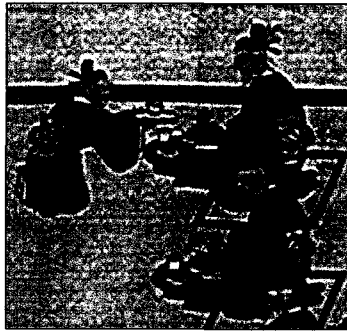
도자기문화에서 18세기는 백자가 유행했던 시기로 문양이 없는 고전적인 유백색(乳白色), 설백색(雪白色)의 순(純)백자와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백자청화(白瓷靑華) 등의 도자 수요층의 확산으로 지방의 자기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되고¹⁰⁾, <그림 6>에서 주칠의 사우책상반(四隅冊床盤) 주대(酒臺)로 백자청화호(白瓷靑畫壺)을 볼 수 있고 시대적 도자문화에 대한 변천과정을 볼 수 있다. 18세기는 문헌 및 회화에서 보더라도 풍성한 식생활, 신분 별 식사의예법의 중요성 강조, 다양한 도자기 문화를 통해 보더라도 한식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10, 13)}.

3.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 18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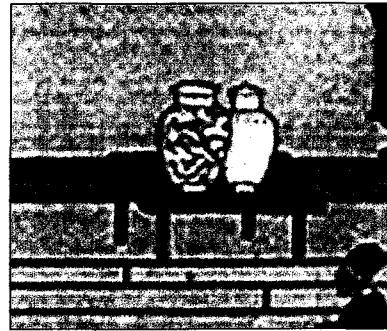
궁중이나 양반 관료의 권위적인 기록화에서 민간인 구경꾼이나 민중의 삶이 다양하고 폭넓게 그려지는 풍속도적 진면목은 풍속화가 유행하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¹¹⁾.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 초 김홍도가 1804년(순조 4년)에 그린 <기로세련도(耆老世聯圖)>로 개성 만월대(萬月臺)에서 문인들이 계회(契會)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비단에 열은 채색을 사용하여 계축(契軸)의 형식으로 그린 풍속화이다. 이 그림은 조선 초기의 계



〈그림 4〉 김진여, 장태홍, 박동선, 장득만, 허숙 합작.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기사계첩(耆社契帖) 중 제9면〉/1720년/견본채색/43.9×67.6cm/호암미술관



〈그림 5〉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부분확대



〈그림 6〉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부분확대

회도는 대체로 위쪽에 전서체로 계획의 명칭을 적고, 중간의 넓은 화면에 산수를 배경으로 계획 장면을 보여주며, 아래에는 참석자들의 성명, 생년, 과거 급제년도, 위계, 관직 등을 적은 좌목을 마련하는 식의 매우 독특한 이른바 계축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를 거쳐 후기로 넘어가면 이 계축은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고 기록이 쉬우며 보관이 쉬운 계첩(契帖)으로 점차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림 7〉의 〈기로세련계도〉는 조선 후기에 그려졌으면서도 형식은 조선 초·중기 이래의 계축의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³⁾.

〈그림 7〉의 상단에 쓰여 있는 홍의영(洪儀泳, 1750~1815년)의 장문의 제발을 보면, 송도(松都)는 예로부터 이름난 고을로 산수와 인물이 출중한데, 만력 정미년간(1607년)에 송도의 장노들이 낙사(洛社) 기영회(耆英會)와 서경(西京) 구로회(九老會)의 고사(故事)를 본받아 연계를 꾸미고 신의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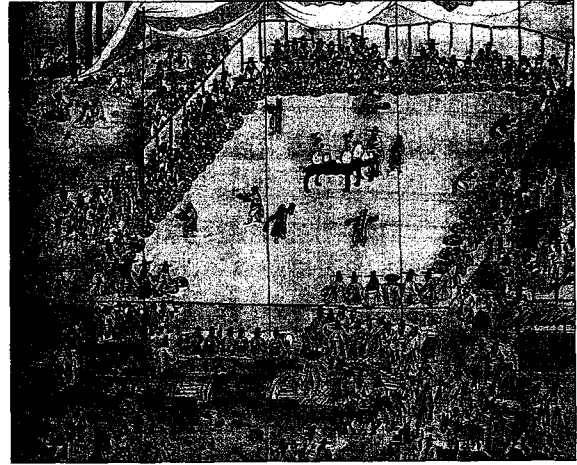
목을 도모한 일을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계원 중의 후손 집에서 그 유도를 보게 되어 그 때의 즐거움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계(契)가 결성되었으니 갑자기 (1804년) 늦가을(季秋)일이었으며 계(契)가 끝난 다음 김홍도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하니 단풍이 든 뒷산은 송악(松岳), 그 아래가 만월대이며 여기 모인 이가 모두 64인이었는데, 그 계원 중 한 후예인 장모군(張某君)이 서(書)를 부탁하여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7〉에서 화면을 크게 2등분하여 하단은 참석자 64명을 〈터진 □형〉으로 포치하고 중앙과 그 주변에 풍성한 잔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회의 장면은 높게 드리워진 흰 차일로 인하여 이 그림의 중심부 위치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해주며 가지런히 앉은 64인과 분방하게 움직이는 구경꾼과 일손의 모습으로 화면전체에는 차분한 안정감과 함께 생기는 움직임이 같이 살아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



〈그림 7〉 김홍도(金弘道)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 1804년/견본담채/137×53.3cm/서울 개인장

배치법은 반드시 64명을 표현해야만 한다고 화면구도상의 제약을 능숙하게 처리해낸 과연 단원다운 솜씨라고 하겠다⁴⁾. 차일 아래쪽은 부감법으로 내려다본 시각이지만 그 윗쪽은 소나무와 안개띠로 공간상의 거리를 암시한 다음 준수하게 생긴 송악산의 바위줄기를 대담하게 사선으로 끊어서 대각선으로 포치하고 그 연결감은 여백으로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송악산 바위의 주름을 표현한 붓놀림은 이른바 〈단원문〉이라고 일컫을 만한 독특한 필법으로 그 께체감과 질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는 단원이 50대 중엽부터 완성한 개성적인 필치인 것이다⁴⁾.



〈그림 8〉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의 잔치장면 부분 확대



〈그림 9〉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의 잔치장면 부분 확대

연풍 현감을 그만 둔 51세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단원의 완숙한 필치와 능숙한 구도법이 이 작품에 와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림 하단에 64명의 성명과 본관을 적은 것은 전통적인 계회도 형식을 약식으로 변형한 것이며, 제발 바로 아래쪽 왼편에는 당대 예서(隸書)의 대가인 유한지(兪漢芝)가 단정하게 쓴 〈기로세련계도〉라는 화제(一題)와 〈兪印漢芝〉라는 주문방인, 그리고 〈단원사〉라는 낙관과 〈김인홍도〉란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찍혀 있다. 단원의 작품 중 절대연대를 알려준다는 귀중한 기년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명품이다⁴⁾.

〈그림 8〉에서 저마다 일인용 술상을 받고 앉아 있는 계원들 앞에 시중들고 있는 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앞쪽 계단 위에는 잔

치의 흥을 돋우는 풍각쟁이들이 일렬로 앉아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그들 앞쪽에서 두 명의 무동(舞童)이 풍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연회장 오른쪽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가건물이 보이고, 그 곳에서 음식을 내어 오는 아녀자들이 걸음이 바쁘다. 주변마다에는 계원을 태우고 왔을 말,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서성이고 있다. <그림 7>에 왼쪽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에는 관심이 없는 듯 따로 춤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모(酒母)를 둘러싸고 자기네들끼리 술잔을 기울이는 술꾼들도 보인다⁴⁾. 전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250여명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마부, 그리고 저 혼자 술에 취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취객, 심지어는 병거지를 쓰고 밥 빌러 온 거지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북적대는 연회장 주변 풍경은 동네 잔치를 방불케 하고 고상하다든지 권위가 있다든지 하는 느낌보다는 구수하고 익살스러운 표현이 앞서 있다⁴⁾.

실학과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소설 『양반전(兩班傳)』에 보면 정치적으로는 2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양반정치의 붕괴로 돈 많은 부자가 양반문서를 사서 양반이 되는 시대적 특징으로 그 양반문서 내용에는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식사예절, 배고픔을 참는 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⁶⁾.

19세기초 식기문화를 보면 쏟아져 들어오던 청의 문물 중에서는 중국도자와 골동 등에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이압(李押, 1737~1795년)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도 남아있다¹⁰⁾. 청 문물의 유입 역시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계층의 사치 풍조도 더욱 기세를 부렸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도자 수요층의 확산과 함께 지방의 자기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쳤다. 순조(1800~1834년) 간에 서유구(徐有渠)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사기, 자기, 토기와 원료 및 시장까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 전국에 걸쳐 도자유동이 원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⁶⁾. <그림 9>에서 주칠 사우책상반(四隅册床盤)위에 순백자의 기명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요층 확산 등 백자의 일반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사발과 대접을 비롯하여 접시, 종지 등이 하나의 반상(盤床)을 이루어 이러한 반

상 풍조는 경제적인 여유와 다양해진 식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다^{10, 17)}.

III. 결론

본 논문은 임진왜란(1592~1598)과 명을 멸망하고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에 의한 병자호란(1636~1637)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기회복의 방법을 모색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조선 후기(17세기초~19세기초) 기로연(耆老宴) 회화에 나타난 식문화를 살펴 보았다. 기로연과 관련된 조선후기 회화로 17세기 초 인조(재위 1623~1649) 연간인 1629년 제작된 이기룡(李起龍, 1600~?)의 <남지계회도(南池契會圖)>, 18세기 초 경종(재위 1720~1724) 즉위년인 1720년 김진여, 장태홍, 박동선, 장득만, 허숙의 합작으로 그린 <기사계첩(耆社契帖)>중 제 9면에 기록된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19세기 초 순조(재위 1800~1834) 연간인 1804년에 제작된 김홍도의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이다.

장유유서(長幼有序)와 효사상(孝思想)에 근간한 동갑노인의 친목을 위한 기로회는 신의와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특수성의 일면을 가진 계연(契宴)으로 조상들의 선비정신과 어르신 섬김의 정서를 역력히 볼 수 있었다. 3세기에 걸친 조선후기 회화를 통하여 기로연(耆老宴) 성격의 변화, 반상문화, 식기문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기로회(耆老會) 성격이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에게 국가에서 베풀어 주던 잔치가 일반문신 신분계층의 확대가 되었음을 회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어진이를 존중하고 기리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는 예(禮)를 중요시하는 향음주의(鄉飲酒義), 식사예법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좌식문화(座式文化)의 대표적인 방식, 돛자리, 독상 반상문화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 기로연 회화에 나타난 순백자, 청화백자 등 시대적 도자변천사 및 자기 수요층의 확산, 기명의 다양화 등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로연 회화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시대적 특성인 양반정치의 붕괴, 실학파의 대두로 중세적 체제의 해체, 식생활

의 다양화 등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이성우. 식생활과 문화. pp. 41, 수학사, 2004
- 2) Oh SY, Lee H. A thought on Korean food culture and collectivity. Korean J. Food Culture 19(5):556-565, 2004
- 3) 허균. 뜻으로 풀어본 우리의 옛그림. pp. 143-149, 대한교과서, 1997
- 4) 안휘준. 한국의 미 시리즈. pp. 228-229, 중앙일보사, 1985
- 5) 이효지. 한국의 음식문화. pp. 227, 신광출판사, 1998
- 6) 아사카와 다쿠미.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pp. 22-28, 학고재, 1996
- 7) 법제처. 경국대전. 일지사, 1985
- 8) 남만성. 예기. 평범사, 1976
- 9) 안동장씨, 백두현. 한복려 해제. 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10) 방병선. 순백으로 빛어 낸 조선의 마음 백자 pp. 33-77, 돌베개, 2002
- 11)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pp. 148-152, 학고재, 1996
- 12)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보진제, 1974
- 13) 강인회.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1993
- 14) 이덕무. 청장관전서. 서울대학교, 1966
- 15) 박지원, 장덕순편. 양반전. 일신사, 1980
- 16) 서유구. 임원경제지. 보경문화사, 1983
- 17) Lee EW, Yun YI, Lee JM. The types and used of tableware china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Korean J. Food Culture 19(5): 477-483, 2004